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 특성이 노후준비수준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Family Characteristics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on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Old Age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박 주 희*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Park, Ju-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amily characteristics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on the level of their later life preparation. This study randomly sampled a birth cohort between 1955 and 1963 consisting of participants living in Seoul, South Korea with a spouse and a child/children. This study investigated a total of 455 subjects from March 2 to March 20, 2016. The study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baby boomers' family relationships and their effects on their later life preparation. It was found that 55.4% of the subjects had at least 2 children, and 44.6% had 1 child. Concerning their children's marital status, 33.8% had married children and 66.2% had unmarried children. The level of their children's support was found at 2.82 points (standard deviation [SD] = .64), which is slightly higher than the mean value of 2.5. The spouse satisfaction among the subjects was found to be 3.59 (.79) which is higher than the mean value of 3. The general status of later life preparation was 2.70 (SD = .44), which is lower than the mean value of 3. In the sub-dimension, the level of social preparation was 2.98 points (SD = .61); the level of economic preparation was 2.60 (SD = .64); and the level of physical preparation was 2.53 (SD = .45). All the values were lower than the mean value of 3. The overall status of later life preparation of the subjects in this study was low. The physical preparation level was particularly low.

* 주저자, 교신저자: 박주희(pjh@sungshin.ac.kr)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baby boomers' later life preparation,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implemented. As a result, a significant effect was found in specific factors, such as spouse satisfaction ($\beta = .32, p < .001$), age ($\beta = .26, p < .001$), number of children ($\beta = -.18, p < .001$), health status ($\beta = .18, p < .001$), gender ($\beta = -.11, p < .05$), household income ($\beta = .10, p < .05$), and children's marital status ($\beta = .10, p < .05$). That is, the higher the spousal satisfaction, the older the age, and the lower the number of children, the higher the levels of later life preparation. Further, a higher level of later life preparation was observed in women, those with higher household incomes, and those with married children.

Key Words : 베이비부머 세대(baby boomer generation), 가족 특성(characteristics of family relationship), 노후준비수준(level of preparation for old age), 배우자만족도 (spouse satisfaction)

I. 서론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100세 시대가 도래 하였고 그에 따른 사회 전반의 대응책 마련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특히 노년기에 진입하는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란 전쟁이나 경기 침체 이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출생한 집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1955년부터 1963년 출생자로서 201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총인구의 14.0%를 차지하는 711만의 거대 인구집단으로 등장하였다(통계청, 2014). 이 세대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Baek & DeVaney (2004)는 이들의 특성과 움직임(movement)은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수적 증대로 인해 기존 질서와 가치관, 사회체계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중요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사회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을 답습한 세대이면서 동시에 자녀교육은 물론 결혼준비를 위한 경제적 지원까지도 아

낌없이 제공해 왔던 세대이다. 그러나 자신은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워며 일반적으로 가족부양을 제공해야 하는 가치관을 가진 세대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차성관, 2012).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국내 각종 사회·경제지표가 하락세를 보이게 된 2000년대 후반 즈음이다. 이는 1990년대 말 IMF 위기를 전후로 발생한 빈곤과 실업문제의 중심이 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으로부터 내몰리게 되고 또한 이탈로 인해 이들 실업자에 대한 사회복지비용 증가라는 쟁점(정경희 외, 2010; Lee, 2013)을 급부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라는 사회적 요인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실업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처럼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적 역할부재와 소외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과 사회복지지원 제도와 사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다(박태정, 2013; Knackman & Snell, 2002; Radner, 1998).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 현황을 살펴보면(서울시 보도자료, 2015), 현재 50·60대는 1980, 90년

대 고도의 경제성장기의 주역으로 국가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로 기대수명은 늘어나지만 경제활동 기간이 단축되는 역설적 상황과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의 미흡함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미비한 노후준비는 자녀세대의 경제적 상황 및 만혼화 현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혼화의 현상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를 악화시키는 측면으로 작용한다. 관련 연구들을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녀의 결혼비용은 물론이고 미취업 성인자녀의 용돈과 대학원 교육비 및 취업을 준비를 위한 학원비도 부모인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방하남 외, 2010; 한경혜, 2011). 부모의 자녀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우리사회의 만혼화 현상과 깊은 연관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부모세대의 노후준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인의 빈곤문제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는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가족주기의 변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배우자와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부관계에서의 만족도가 이후 삶의 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된다(정경희, 2011; 한경혜, 2011).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는 결혼 과정에서도 연애결혼이 늘어난 세대로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이전 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세대는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사회는 서구와 달리 성인기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고 부모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베이비부머의 자녀 돌봄이 미치는 영향(김윤정 · 강현정, 2013; 이선형 · 문은영 · 김보람, 2014)과 관련된 가족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성인기 자녀의 결혼지원, 자녀에 대한 지원수준과 같은 측면이 노후준비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기로의 전환에 따른 가족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연구들을 보면 은퇴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DeVaney, 1995), 노후준비의 실태에 대한 연구(김미혜, 2010), 노후준비영역과 관련하여도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둔 연구(박창제, 2008), 노년기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들(김영남, 2015; Rusell, 1993)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붐 세대와 이들 연구들은 주로 노후준비 전반적인 실태나 경제적 노후준비에 초점을 둔 접근들이 대부분이거나 노후준비를 노후 대비 영역별로 준비 실태나 노후준비가 부족한 영역을 규명하고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일부 베이비 붐 세대의 연구들은 40대, 50대, 60대의 중·장령층이 혼재되어 있어 베이비 붐 세대만의 노후준비 특성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정순돌 · 이현희, 2012). 즉,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준비 현황 및 관련 요인을 이해하는데 유용성을 얻을 수 있었지만 베이비 붐 세대만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세대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순돌과 이현희(2012)는 베이비 붐 세대의 ‘끼인 세대’의 특성에 주목해 가족 특성과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가족 특성이 대체로 자녀관계 만족도(곽인숙, 2011), 자녀에 대한 부담(김순미 · 고선강, 2012)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의 가족의 특성을 부부관계 특성과 자녀지원 및 자녀결혼여부를 포함해 노후준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수준을 파악해 보고 노년기 진입을 눈앞에 둔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또한 가족 특성과 노후준비수준에 관련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행복한 삶

의 기반이 되는 가족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더불어 개인의 삶과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에 유용한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 특성(자녀 및 부부관계 특성), 노후준비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반적 특성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5년에서 1963년 출생 집단은 2016년 현재 53세에서 61세에 해당하는 연령대로 생애주기로 보면 중년기에 속한다. 중년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의 주기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결정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시기이며, 중년기는 결혼생활과 직업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역할의 의미를 찾고 개인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평가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찾는 시기라고 하였다(김유정, 2009). 중년기의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는데 Staudinger & Bluck(2001)은 중년기를 생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의 생애 과정의 특징과 차이점에 주목하여 중년전기(early-midlife: 40-49세)와 중년후기(late-midlife: 50-60세)로 구분하였다. 한편 중년기는 신체적 측면에서 생물학적 기능 감소와 더불어 사회적 역할 상실 및 유대 관계의 축소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삶에 대한 만족이 저하 될 수 있는 시기이다(Whitbourne, 2001). 중년기는 생애 주기적으로 가장 소득이 높은 연령이고 자녀의 성장으로 인해 양육부담도 감소하는 시기이며, 사회적 성취 또한 인생의 절정기이자 황금기로

볼 수 있는 반면 사회적 역할의 상실로 인한 긴장과 위기감을 경험하는 시기로 보는 입장도 있다(배문조, 2009). Erickson(1994)은 중년기를 자신과 타인의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타인의 욕구를 예측할 수 있으며, 미래를 계획하는 시기로 규정하면서, 이 단계에서 건강한 성인이 달성해야 할 발달 과업을 생산성(generativity)으로 정의하였다. 생산성이란 자녀 양육의 의미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활동이나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사회의 발전에 관심을 가질 때 생산적 시기를 보내게 되며 그렇지 못할 때 침체되기 쉬우며, 다음 단계인 노년기에서 성공적 노년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장애를 겪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중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생애 특성을 요약해 보면 첫째, 빈곤의 시대와 풍요의 시대를 모두를 경험한 세대이다. 베이비부머들의 유년기는 한국 전쟁 종전 이후,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하여 결식의 경험, 식량부족으로 잡곡의 혼식도시락으로 확인된 후에 점심을 먹을 수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송양민, 2010), 청·장년기에는 국가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일에 근면하게 몰입하고 가족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한 평생을 살아오며 경제적 풍요를 일궈낸 세대이다. 둘째, 전통적 가족가치와 근대적 개인주의 가치 모두를 경험한 세대이다. 이들에게는 개인보다 가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가족중심의 가치가 내재와 되어 있다(최재석, 2009). 그러나 산업화와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전통적 가족중심의 가치로부터 개인의 목적이나 사생활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삶을 경험하게 된 세대이다. 셋째,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양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이전 세대에 비해 생활수준이 급격히 높아졌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혜택으로 이전 세대에 비해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양질의 교육과 훈련을 받고 노동시장에 진입해 산업화의 주역세대이며,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위향

상 등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을 경험한 세대이다(Zapolsky, 2003).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메스컴과 기술 발달 및 세계 여행 개방화 등의 영향으로 세계화의 중심 세대이며 (Maples & Abney, 2006), 기존의 기성세대에 비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의식을 보유하고 있고, 노년기를 자기실현의 기회 또는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보는 등 많은 부분에서 과거 노인층과는 다른 노년기에 대한 기대를 지닌다(정경희 외, 2010; Laslett, 1991). 또한 이들 베이비부머들은 이전 노인세대에 비해 도시지역에 사는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도 높은 편이다. 베이비부머들의 경우 고졸 이상 학력자가 약 70%인 반면, 60세이상 노인의 경우 중졸 이상 학력이 29%에 불과하다(정경희 외, 2010). 이 세대들은 또한 기성세대에 비해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가 높고, 효율적 시간 사용에 민감하며,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려는 욕구가 강한 편이다(박지승, 2012).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변화하는 의식과 태도는 현재의 노년세대와는 다른 노후준비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게 한다.

2. 가족 특성

1) 부부관계

중년기 이후부터 노년기에는 퇴직 등으로 인해 사회집단과의 관계는 축소되고 가족관계 중심의 사회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권중돈, 2011). 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겪게 되는 다양한 위기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 배우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해당되는 중년기는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서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한 부모역할에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한 남편, 아내역할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 측면에서는 ‘빈 등지시기’에 해당되어 상실감과 함께 가족관계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는

시기이다(곽인숙 · 홍성희, 2008).

袖井(1999; 김혜경, 2013에서 재인용)는 중년기 이후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청년 이후의 생존기간이 길어진 점, 둘째 남녀 모두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기에 배우자가 함께 생존하는 비율이 높아진 점, 셋째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여 살기를 원하는 노인이 증가한 점, 넷째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 부부 세대가 증가한 점 등이다. 정경희 외(2010)의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는 노후에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동거자에 대해서, ‘부부끼리, 혹은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93.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노후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관계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절대다수인 78.4%가 배우자로 응답하고 있어 중년기 부부관계는 노후의 삶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중년기에 감당해야 하는 부양부담이나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생활은 크게 위협받을 수도 있다. 실제 이는 중년세대의 이혼율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통계청, 2014),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6.5세, 여자 42.8세이며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은 2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이들 세대는 대부분은 대가족에서 핵가족의 전환기에 성장한 탓에 전통과 현대라는 양면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다.

2) 자녀 관련 요인들

가족발달 주기 상 중년기 부부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아지고 있으며 또는 자녀들을 출가시키는 단계로 그 과정에서 부부관계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자녀관계의 중요성은 특히 자녀 교육과 입시경쟁이 사회적으로도 비중 있게 논의되기 때문에 더욱 자녀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 이전의 세대가 중년기였을 때, 부모들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여 자녀부양의 책임

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자신의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시기를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중년기에 속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교육이나 취업 등으로 자녀들이 독립하는 시기가 지연되면서 중년기 부모의 역할수행기간 또한 길어지고 있다(어성연·조희금·고선강, 2010; 홍성희·곽인숙, 2014). 베이비붐 세대의 노부모 중 약 70%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생활비를 제공받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약 90%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까지 부양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다(정경희 외, 2010).

구체적으로 정경희 외(2010)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0%가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인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은 경제적 지원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되는 만 20세까지 부양하면 된다고 보는 비중은 3.2%에 불과한 반면 결혼할 때까지(41.5%), 학업을 마칠 때까지(29.6%), 직장이 생길 때까지(23.9%)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박영란과 홍백의(2011)의 연구에서는 월 생활비의 17.5%(고등학생 이하 자녀)와 14.5%(대학생 자녀)를 차지하는 자녀 사교육비는 가족 부양의 경제적 부담 수준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이는 결국 샌드위치 세대로서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양 부담이 부모 세대로 기인하기보다는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에 의한 것으로 지적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관계의 또 다른 문제는 성인자녀의 결혼비용의 문제이다. 김승권 외(2012)가 조사한 3년간의 결혼비용을 분석한 결과, 아들 결혼에 든 비용이 평균 1억 735만원, 딸 결혼에 든 비용은 3,53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세대의 자녀결혼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따라서 이들 세대의 자녀들이 미혼인 상태로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결혼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비롯해 자녀세대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지속적

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예상케 한다. 자연히 노후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장년층의 부부관계와 자녀관계 특성은 노후준비수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노후준비수준 개념 및 관련 요인들

1) 노후준비수준의 개념 및 실태

① 노후준비수준의 개념 및 영역

노후준비수준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박현식(2012)은 노년기에 겪게 되는 빈곤, 건강, 역할상실, 고독의 4중고(重苦)를 대비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박창제(2008)는 노후를 위한 자원들을 마련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이라고 정의하였다. 임은경(2013)은 노후준비는 노후대비 노후대책 등과 유사한 용어로 준비라는 말은 ‘필요한 것을 미리 마련하여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Lazarus & Folkman(1984)은 노후준비를 개체의 수준에서 체계적응을 위해 자원을 소비해야 할 상황에 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노후준비수준이란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미리 예측하여 그것에 대한 준비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겠다.

한편 노후준비영역에 관해 김인숙(2004)은 경제적, 신체적, 건강주거 및, 여가준비로 구분하였다. 배문조(2009)는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준비로 나누었으며 김영완(2010)은 베이비 붐 세대를 대상으로 신체적 영역, 경제적 영역, 정서적 영역, 사회활동 및 여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김미혜(2010)는 노후준비를 경제적 차원과 통합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경제적 차원의 노년준비는 노년생활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적·사적기제를 통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며, 통합적 차원은 노년기 경제적 기회 구조를 강조하는 동시에 건강과 인적자본, 가족 및 사회관계, 여가 등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노후준비수준의 영역은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로 구성하여 살펴보겠다.

② 노후준비실태

노후준비수준 실태를 살펴보면, 통계청(2011) '2011년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19세 이상 가구주가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75.8%이며, 40대는 준비율이 86.3%, 50대는 83.1%, 60세 이상은 52.0%로서 가장 낮은 비율이 나타났다. 서울시의 2015년 조사한 중장년층 노후준비수준을 보면(서울복지재단, 2015), 현재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6.4%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71.2%), 가족(70.8%), 건강(67.8%)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가활동(47.7%), 일·직업(41.3%), 소득·자산(38.9%), 사회참여(25.8%)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김혜진(2012)의 연구에 의하면 50대의 노후준비 지수는 대인관계 영역과 건강 영역에서 각각 62.2점과 69.6점을 기록해 양호한 편이었지만, 재무 영역의 노후준비 지수는 52.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보건복지부(2012)의 조사에 따르면, 45세~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후준비 정도에서도 경제, 건강, 여가, 사회참여 중 건강에 대비한 노후준비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노후준비 준비와 관련해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평균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현재의 소득수준은 높지만,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은 오히려 이전세대인 해방직후 세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방하남 외, 2010).

또한 사회적 노후준비와 관련해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긴 노년기를 보내게 되면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준비와 함께 여가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조추

용·송미영·이근선, 2009)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년기에는 생산적 활동 외에 자신의 여생을 즐기기 위한 많은 시간이 제공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 역시 필요하다. 또한 여가생활의 경우 청장년기 여가활동 경험이 노년기 여가활동의 적극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여가학습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가적 측면에 대한 노후준비의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윤경 외, 2013).

이상의 노후준비 실태를 통해 하위 영역별 노후준비수준은 연구결과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런 결과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동질한 집단이 아닌 이질적 특성을 가진 세대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특정 영역의 노후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닌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노후준비수준의 파악을 통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가족 특성이 노후준비수준에 미치는 영향

가족 특성이 노후준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먼저 김윤정과 최윤희(2004)는 남편의 경우 아내와의 결혼생활이나 아내의 노후준비에 만족할수록 자신도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으며 아내 또한 남편의 노후준비에 만족 할수록 자신도 노후준비를 훨씬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경(2002)은 배우자와 가족에 만족할 때 노후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보도자료(2015)는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70%가 넘었지만 '배우자와 단 둘이 있는 시간이 편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남성은 37%, 여성은 16.7%였다. 추기철(2000)의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녀관계 특성과 노후준비수준을 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를 위한 총지출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후대비에 대한 기회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영, 2006; 부말숙·김혜연, 2007). 또한 자녀수가 적을 때 경제적 노후준비가 더 잘 된다는

연구(나지나 외, 2010; 문숙재·김순미, 1997; 신승희, 2010)도 있다. 정영옥(2014)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노후준비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부부관계 특성 및 자녀 특성의 다양한 변인들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 특성으로 부부관계 요인은 배우자 관계만족도로 살펴보고 자녀관계 요인은 자녀수, 자녀에 대한 지원수준, 자녀의 결혼여부로 구성하여 살펴보겠다.

3)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인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인으로 성별, 학력, 소득과 주관적 건강, 자산 등이 있다. 성별의 경우 노후준비의 차이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으나, 남성이 더 적극적이란 연구(서전, 2004), 여성의 준비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김성령, 2011; 김지영, 2009; 조추용 외, 2009) 등 성에 따른 차이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김영남(2015)의 연구에서 연령의 경우 중장년층의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측면에서의 노후준비 수준이 차이가 있었으며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준비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가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실제적 준비정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혜, 2010; 이소정, 2009; 조추용 외, 2009). 또한 소득은 노후준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혜, 2010; 김지영, 2009; 이선행, 2007; 조추용 외, 2009). 주관적 건강상태는 포괄적인 건강상태의 예측효과가 있으며(이미숙, 2009) 노후준비와의 높은 상관관계가 보고된바 있다(신승희, 2010; 임희정, 2003). 임희정(2003), 신승희(2010)의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주관적 건강상태는 노후준비와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능력을 낮게 평가할수록 은퇴계획에 따른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성희, 2006).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955년에서 1963년 출생한 집단으로 대상으로 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들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대상으로 표집 하였으며 연구를 위하여 먼저 2016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조사는 2016년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자 및 사전교육 받은 조사가원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유의표본 추출을 통해 총 500부를 배부하였고 부실 기재된 45부를 제외한 최종 455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3-1>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자의 수는 총 455명으로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성은 36.7%, 여성은 63.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55~59세는 44.6%, 50~54세 34.3%, 60대가 21.1%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56.18세로 나타났다. 50대 연령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전문직 29.3%, 주부 20.2%, 사무·관리직 19.1%, 기술직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다가 40.8%, 보통이다 40.0%, 나쁜 편이다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201-400만원 이하가 37.6%, 401-600만원 이하 32.1%, 601-800만원 이하 14.4%, 200만원 이하는 11.1%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451만원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이 51.3%, 대졸이상은 30.4%, 중졸이하는 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내용	빈도	%
성별	남	167	36.7
	여	288	63.3
	합계	455	100.0
연령 평균 : 56.18 (sd=3.98)	50-54세	156	34.3
	55-59세	203	44.6
	60-64	96	21.1
	합계	455	100.0
직업	전문직	132	29.3
	사무·관리직	86	19.1
	판매서비스직	6	1.3
	기술직	61	13.5
	단순노무직	15	3.3
	자영업	29	6.4
	주부	91	20.2
	기타	22	4.9
	무직	10	2.0
	합계	452	100.0
건강	매우나쁨	7	1.6
	나쁨	40	8.9
	보통	179	40.0
	좋음	183	40.8
	매우좋음	39	8.7
	합계	448	100.0
가구소득 (평균:451 만원)	200만원이하	50	11.1
	201-400만원이하	170	37.6
	401-600만원이하	145	32.1
	601-800만원이하	65	14.4
	801만원이상	22	4.9
	합계	452	100.0
교육수준	중졸	82	18.3
	고졸	223	51.3
	대졸이상	129	30.4
	합계	424	100.0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검토 작업을 한 후, SPSS 21.0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연구모형의 각 변수를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가족 특성, 노후준비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노후준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노후준비수준

노후준비수준의 측정은 이정화(2009)가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 측정도구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는 ‘귀하는 노후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에 총 17개의 하위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체적 노후준비는 ‘평상시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주5회 이상, 매회 30분 이상)’,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다’, ‘정상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음식조절을 하며 인스턴트 식품이나 외식을 자제한다’, ‘매일 5종류 이상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한다’, ‘흡연과 음주를 피한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등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Chronbach’s $\alpha = .62$ 로 나타났다. 경제적 노후준비는 ‘노후에 여가생활을 즐길만한 경제적 여유를 가진다’, ‘노후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준비한다’, ‘독립적으로 노후의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

다, ‘노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키운다(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등)’ 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Chronbach’s $\alpha = .68$ 로 나타났다. 사회적 노후준비는 ‘노후를 위해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활동에 참여 한다’, ‘노후에 할 여가활동 및 취미활동을 준비 한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자주 참석 한다’, ‘배우자나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한다’, ‘노후에 활동을 같이 할 친구와 이웃이 있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신뢰도 Chronbach’s $\alpha = .69$ 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수준의 전체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70$ 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1) 자녀 관련 요인들

자녀관계 특성으로 자녀수, 자녀지원수준, 자녀 결혼여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자녀수는 연속변수로 측정하였으며 자녀 결혼여부는 현재 기혼인지 미혼인지를 묻는 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녀 지원수준은 김수화(2012)의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자녀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보태준다’, ‘집안일, 심부름, 병간호 등의 도움을 자녀에게 제공해 준다’, ‘자녀가 고민이 있을 때 나는 의지가 되어준다’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없음(1점)’, ‘별로 없음(2점)’, ‘중중 있음(3점)’, ‘매우 있음(4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지원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녀지원수준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 = .71$ 로 나타났다.

(2) 부부관계 특성

부부관계 특성은 이정연(1987)이 사용한 결혼 만족도 척도를 본 연구 대상에 맞게 수정하여 ‘만일 귀하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더 행복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라면 더 행복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배

우자로 인해 당신이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결혼 및 배우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을 묻는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며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불만족(1점)’, ‘불만족(2점)’, ‘그저 그렇다(3점)’, ‘만족(4점)’, ‘매우 만족(5점)’ 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혼만족도 척도의 Chronbach’s $\alpha = .88$ 로 나타났다.

(3)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구소득의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3-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수		측정	신뢰도
중 속 변 수	노후 준비 수준	경제적 준비수준	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신체적 준비수준	
		사회적 준비수준	
		전체노후준비수준	
독 립 변 수	가족 특성	자녀에 대한 지원수준	1점=전혀 없음, 4=자주 있음
		자녀수	연속변수
		자녀결혼여부	1=결혼, 0=미혼
		배우자관계 만족도	1=매우 불만족, 5=매우만족
통제 변인	성별	남=1, 여=0	
	연령	연속변수	
	가구소득	연속변수	
	건강	1=매우나쁘다, 5=매우 좋다	
	학력	1=중졸, 2=고졸, 3=대졸이상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베이비 붐 세대의 가족 특성, 노후준비수준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 특성, 노후준비수준을 분석한 결과<표4-1>, 먼저 가족 특성 중 자녀관련 특성을 보면 자녀수는 2명이상이 55.4%, 1명은 44.6%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결혼 상태를 보면 자녀가 기혼인 경우는 33.8%, 미혼이 66.2%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지원수준은 2.82점(SD=.66)으로 중간값 2.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부관계 특성인 배우자만족도는 3.59(.79)으로 중간값 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후준비수준에서는 전체 노후준비수준 2.70점(SD=.44)으로 중간값 2.5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인 사회적 준비수준은 2.98점(SD=.61), 경제적 준비도 2.60(SD=.64), 신체적 준비도는 2.53점(SD=.45)으로 중간값 2.5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노후준비수준의 하위 영역별로는 사회적 준비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신체적 노후준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건복지부(2012)의 결과와는 다

르게 나타났으나 정순돌과 이현희(2012)의 사회적 노후준비수준이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수준 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2.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4-2>와 같다. 이 중 불연속변수인 성별, 자녀결혼여부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1단계에는 통제변인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구소득을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가족관계특성 변인을 투입하였다.

1단계에서의 통제변수를 투입결과<표4-3>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은 ‘건강’(β=.33, p<.001), ‘연령’(β=.22, p<.001), ‘가구소득’(β=.18, p<.001), ‘성별’(β= -.13, p<.05)이 노후준비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usted R²은 0.186로 이 변인들은 노후준비수준 변량의 18.6%를 설명하였다(F=19.00, p<.001).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인 경우 노후준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가족관계특성을 하위요인 별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배우자 관계만족도’(β=.32, p<.001), ‘연령’(β=.26, p<.001), ‘자녀수’(β= -.18, p<.001), ‘건강’(β=.18, p<.001), ‘성별’(β= -.11, p<.05), ‘가구소득’(β=.10, p<.05), ‘자녀결혼여부’(β=.10, p<.05)가 노후준비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usted R²은 0.331로 2 단계에서 설명력은 1단계 보다 14.5%p 증가하여 이 변인들은 노후준비수준 변량의 33.1%를 설명하였다(F=20.05, p<.001). 즉, 배우자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건강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수준이 높았으며 여성인 경

<표4-1>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 특성, 노후준비수준

변인		빈도(%)		
가족 특성	자녀수	1명	203(44.6)	
		2명이상	252(55.4)	
	자녀결혼 여부	기혼	154(33.8)	
		미혼	301(66.2)	
자녀지원수준		M(SD)	최소값	최대값
		2.82(.64)	1	4
배우자관계만족도		3.59(.79)	1	5
노후 준비 수준	신체적준비수준	2.53(.45)	1	4
	경제적준비수준	2.60(.63)		
	사회적준비수준	2.98(.61)		
	전체노후준비수준	2.70(.44)		

〈표4-2〉 변인들 간 상관관계

구분	성별	연령	학력	건강	가구소득	자녀수	자녀결혼여부	자녀지원수준	배우자관계만족	노후준비수준
성별	1									
연령	-.01	1								
학력	.07	-.02	1							
건강	.10*	.24**	-.03	1						
가구소득	-.01	-.28**	-.05	-.03	1					
자녀수	.16**	.06	-.01	.19**	-.14*	1				
자녀결혼여부	-.04	.22**	.10*	-.04	-.24**	.03	1			
자녀지원수준	-.05	-.09	-.04	.12*	.16**	-.03	-.09	1		
배우자관계만족도	.14**	-.04	-.01	.38**	.15**	.10*	-.00	.23**	1	
노후준비수준	-.10*	.26**	.05	.38**	.10*	-.10*	.11*	.14**	.25**	1

*p<.05, **p<.01

〈표4-3〉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노후준비			
		1단계		2단계	
		B	β	B	β
상수		.33		1.31	
통제변인	성별	-.12	-.13*	-.10	-.11*
	연령	.03	.22**	.0	.26***
	학력	.05	.07	.04	.07
	건강	.17	.33***	.09	.18***
	가구소득	.08	.18***	.04	.10*
가족관계특성	자녀수			-.16	-.18***
	자녀결혼상태			.08	.10*
	자녀지원수준			.03	.05
	배우자관계만족도			.18	.32***
Adjusted R ²		.186		.331	
F		19.00***		20.05***	
VIF		1.01~1.16		1.02~1.42	
DW		1.76		1.84	

1)성별:남자=1, 여자=0/자녀결혼상태:기혼=1, 미혼=0

*p<.05, **p<.01, ***p<.001

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결혼한 경우 노후준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결혼생활 만족도와 노후준비수준의 관련성을 입증한 선행

연구들(김윤정·최윤희, 2004; 이은경, 2002)를 지지하였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수준이 높게 나타나 김영남(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자녀수와 노후준비수준의 관계는 선행연구

들(나지나 외2010; 문숙재·김순미, 1997; 신승희, 2010)과 일치하였으며 자녀의 결혼여부는 정영옥(2014)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 베이비 부머가 노후준비수준이 높게 나타나 여성의 준비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김성령, 2011; 김지영, 2009; 조추용 외,2009)들과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건강의 경우에서도 임희정(2003), 신승희(2010)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였으며 또한 본 연구에서 소득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다수의 연구들과(김미혜, 2010; 김지영, 2009; 이선형, 2007; 조추용 외, 2009)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V. 결론 및 제언

베이비부머 세대는 향후 고령사회의 주역으로 우리사회의 중심축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그동안의 다수의 연구들은 노인에 집중되어 있으나 미래 한국사회의 고령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수준과 노후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해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수준에 가족관계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1955년에서 1963년 출생 집단을 임의 추출하여 2016년 3월 2일부터 2016년 3월 20일까지 총 500부를 배포하여 455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 특성, 노후준비수준을 분석한 결과, 가족 특성 중 자녀관련 특성을 보면 자녀수는 2명이상이 55.4%, 1명은 44.6%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결혼 상태를 보면 자녀가 기혼인 경우는 33.8%, 미혼이 66.2%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지원수준은 2.82점(SD=.66)으로 중간값 2.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부관계 특성인

배우자만족도는 3.59(.79)으로 중간값 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후준비수준에서는 전체 노후준비수준 2.70점(SD=.44)으로 중간값 2.5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로도 사회적 준비도는 2.98점(SD=.61), 경제적 준비도 2.60(SD=.64), 신체적 준비도는 2.53점(SD=.45)으로 모두 중간값 2.5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의 통제변수를 투입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은 ‘건강’(β=.33, p<.001), ‘연령’(β=.22, p<.001), ‘가구소득’(β=.18, p<.001), ‘성별’(β=.13, p<.05)이 노후준비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usted R²은 0.186로 이 변인들은 노후준비수준 변량의 18.6%를 설명하였다(F=19.00, p<.001). 즉,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인 경우 노후준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가족관계특성을 하위요인별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배우자관계만족도’(β=.32, p<.001), ‘연령’(β=.26, p<.001), ‘자녀수’(β=.18, p<.001), ‘건강’(β=.18, p<.001), ‘성별’(β=.11, p<.05), ‘가구소득’(β=.10, p<.05), ‘자녀결혼여부’(β=.10, p<.05)가 노후준비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usted R²은 0.331로 2단계에서 설명력은 1단계 보다 14.5%p 증가하여 이 변인들은 노후준비수준 변량의 33.1%를 설명하였다(F=20.05, p<.001). 즉, 배우자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노후준비수준이 높았으며 여성인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결혼한 경우 노후준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수준에 배우자관계만족도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수준에 가족 특성 즉 배우자관계만족도, 자녀수, 자녀

결혼여부는 결정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개인적 특성들 즉 연령, 건강, 소득, 성별 등이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베이비부머 세대를 동질 집단으로 간주한 접근보다는 이질적 특성에 기초한 학문적·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첫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신체적 노후준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필요한 의료정보 및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 특성 중 주목할 점은 배우자관계만족도가 노후준비수준에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부관계 향상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핵가족화 및 가족주기의 변화에 따라 배우자와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 배우자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어 부부관계 중심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동반자적 부부관계 향상 및 친밀감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며 지역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셋째, 베이비부머 자녀 세대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들 세대의 자녀가 많거나 결혼하지 않고 함께 생활할 경우 노후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자녀 세대 즉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정책과 결혼을 유인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제 3

차 저출산 고령화 정책(2015-2020)의 주요정책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등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공적 노후를 지원 위한 정책의 수립도 시급하다고 본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다양한 표집을 통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 특성을 제한된 변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 관련한 다양한 특성들 즉 성역할 태도, 사적이전, 자녀에 대한 가치관 등 몇 가지 고려하지 못한 변수들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폭넓게 고려한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최근 장기불황의 여파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의 명퇴 및 조기퇴직 등의 문제를 고려한 노후준비와의 관련성을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 특성과 노후준비수준을 기존 노년세대와 청·장년층 세대로 비교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다. 즉, 세대별 가족 특성과 노후준비수준의 변화 추이와 같은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 미시적·거시적 차원에서 세대별 정책 개발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박인숙(2011). 노인의 자녀와의 상호간 지원 교환이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4), 107-127.
- 2) 박인숙·홍성희(2008). 남녀직장인의 인적자본 개발이 직무만족과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107-120.

- 3) 권중돈(2011).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4) 김미혜(2010).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준비 실태와 노후준비교육의 방향. 노인인력개발포럼, 5, 29-58.
- 5) 김성령(2011).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주의 가치관, 노후준비도,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수화(2012). 노인-기혼성인자녀 간 지원교환, 사회활동 및 성공적 노후 수준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순미 · 고선강(2012). 중년기 가정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생활준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59-76.
- 8) 김승권 · 박중서 · 김유경 · 김연우 · 최영준 · 손창균 · 윤아름(2012).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9) 김영남(2015). 제주지역 중장년층의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 인식이 노후준비 정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김영완(2010).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생활 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김유정(2009). 중년 부부의 삶의 의미: 코오리 엔테이션 모델 적용.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김윤정 · 강현정(2013). 베이부머의 사회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한국산학기술학논문지, 14(3), 1090-1099.
- 13) 김윤정 · 최윤희(2004).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4(2004.여름호), 197-214.
- 14) 김인숙(2004). 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김지영(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김혜경(2013). 중고령 남녀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혼 유지 · 파탄 및 부부 만족도의 관련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7, 63-83.
- 17) 김혜진(2012). 중년층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이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제도 인지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2, 53-80.
- 18) 나지나 · 백승애 · 신응경, 김미혜(2010).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 보건사회연구, 30(2), 29-54.
- 19) 문숙재 · 김순미(1997).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 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 가족생활주기적 관점의 재정복지실현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5(5), 1-15.
- 20) 박영란 · 홍백의(2011). 베이비부머 은퇴 후 생활 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 21) 박지승(2012). 한국인은 어떤 여가활동을 하는가?: 40~50대 중년층을 중심으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 22) 박진영(2006). 자산계층별 사교육비지출과 재무성과의 관련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61-77.
- 23) 박창제(2008). 중 ·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 297.
- 24) 박태정(2013).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에 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13(3), 29-57.
- 25) 박현식(2012).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과 성공적 노후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58, 281-302.
- 26) 방하남 · 신동균 · 이성균 · 한준 · 김지경 · 신인철(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한국노동연구원
- 27) 배문조(2009). 중년기 성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1107-1122.
- 28) 보건복지부(2012). 노후준비지표 예비조사 결과.
- 29) 부말숙 · 김혜연(2007). 은퇴 후 노후생활 준비 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 30.40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제 60차 하계학술대회, 7-19
- 30) 서 전(2004). 중년기 가족의 노부모 부양 행동 및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1) 서울복지재단(2015). 서울시 노인실태 및 욕구 조사.
- 32) 서울시 보도자료(2015). 50+세대 인생이모작 실태 및 욕구조사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서울시 보도자료, 2015.12.16.
- 33) 송양민(2010). 베이비붐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파주: 21세기 북스.
- 34) 신승희(2010). 중년층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5) 어성연 · 조희금 · 고선강(2010). 전문직 미혼 남녀의 만혼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19.
- 36) 이미숙(2009). 고령화연구패널자료를 이용한 노년기 건강불평등의 구조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25, 5-32.
- 37) 이선형(2007). 중년기 가구의 노인 및 자녀 세대 부양과 노후준비과의 관계.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8) 이선형 · 문은영 · 김보람(2014). 젠더관점에서 본 서울시 베이비부머의 가족생활실태및지원 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39) 이소정(2009).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47, 72-80.
- 40) 이윤경 · 정경희 · 정홍원 · 염주희 · 김세진 (2013). 노후준비 지원 평가지표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 41) 이은경(2002). 중년기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동부산대학 논문집, 21, 715-744.
- 42) 이정연(1987). 주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5(1), 105-119.
- 43) 이정화(2009). 광주 · 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 275-289.
- 44) 임은경(2013).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준비도, 노후불안과 삶의 질 간의 관계.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5) 임희정(2003). 중년층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46) 정경희(2011). 베이비 붐 세대의 제 특성 및 복지욕구. 보건복지포럼, 174, 5-10.
- 47) 정경희 · 이금룡 · 홍백의 · 이수연 · 김소영 · 권중돈 · 김기홍 · 선우덕 · 우석진 · 이소정 · 박영란 · 정석인 · 정순돌 · 천현숙 · 한경혜(2011). 베이비 붐 세대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정책수립 방향 연구. 보건복지부 · 보건사회연구원.
- 48) 정경희 · 이소정 · 이윤경 · 김수봉 · 선우덕 · 오영희 · 김경래 · 박보미 · 유혜영 · 이은진 (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9) 정순돌 · 이현희(2012). 가족특성과 노후준비의 관계: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노인세대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58, 209-231.
- 50) 정영옥(2014).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자녀관련 특성 중심으로. 덕성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1) 조추용 · 송미영 · 이근선(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3, 135-156.
- 52) 차성관(2012).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미래 사회적 자본: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6(1), 67-83.
- 53) 최재석(2009). 한국의 가족과 사회. 파주: 경인문화사.
- 54) 추기철(2000). 한국 중년층의 노후대책에 대한 실증적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5) 홍성희(2006). 중년기 봉급생활자의 노후부양

- 책임에 따른 노후 경제적 준비. 과학논문집, 32, 135-152.
- 56) 통계청(2010). 통계로 본 베이비 붐 세대의 어제와 오늘.
- 57) 통계청(2011). 2011년 사회조사 결과.
- 58) 통계청(2014). 2014 혼인·이혼통계.
- 59) 한경혜(2011). 한국 베이비붐세대의 가족에 대한 이해.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 60) 홍성희·곽인숙 (2007).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 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 61) 홍성희·곽인숙(2014). 성인자녀와의 지원교환이 중년부모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69-91.
- 62) Baek, E. & DeVaney, S.(2004). Assessing the baby boomers' financial wellness using financial ratios and a subjective measure.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2(4), 321-348.
- 63) DeVaney, S. A.(1995). Retirement preparation of older and younger baby boomer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6, 25-34.
- 64) Erickson, E. H.(1994).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65) Kinckman, J. R. & Snell, E. K.(2012). The 2030 problem: Caring for aging baby boomers. Health Service Research, 37(4), 849-884.
- 66) Laslett, P. (1991). A fresh map of life: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67)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68) Maples, M. F. & Abney, P. C. (2006). Baby boomers mature and gerontological counseling comes of ag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4, 3-9.
- 69) Radner, D. B.(1998). The retirement prospects of the baby boom generation. Social Security Bulletin, 61, 3-19.
- 70) Rusell, C. (1993). The master trend: How the baby boom generation is remarking America. New York: Plenum Press.
- 71) Straudinger, U.M. & Bluck.(2001). A view on midlife development from llife-span theory. In M. E. Lanchman(Ed). handbook of midlife development (pp. 345-394). New York: John Willy.
- 72) Whitbourne, S. K. (2001). The psychological aging process in midlife: Interactions with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factors. In M. E. Lachman(Ed), handbook of midlife development, (pp. 109-155). New York: John Willy.
- 73) Zapolsky, S. (2003). Baby boomers and retirement. In Lois, A. V.(ed.) Encyclopedia of Retirement and Finance. Wetport, CT: Greenwood Press.

- 투 고 일 : 2016년 9월 1일
- 심 사 일 : 2016년 10월 5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11월 25일